

전남 드래곤즈 파비아노 감독 경질

엇갈린 광주와 전남의 2019시즌이다. 프로축구 전남드래곤즈가 30일 성적 부진의 책임을 물어 파비아노 수아레스 감독을 경질하고, 전경준 코치를 감독 권한 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전남의 첫 외국인 사령탑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전남은 지난 시즌 1부리그 최하위가 되며 1995년 K리그 참가 이후 처음으로 K리그 2로 강등됐다. '승격'을 목표로 내세운 전남은 지난 1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한 파비아노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지난 시즌까지 클래식 무대에서 뛰었고, 외국인 감독까지 영입하며 변화의 바람을 피한 만큼 전남은 승격 싸움의 전면에 설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남의 2019시즌이 흘러갔다. 3월 2일 아산을 상대한 파비아노 감독의 K리그 데뷔전은 0-3 대패로 끝났다. 2라

승점 22로 8위, PO 진출 난망 ... 전경준 코치 권한대행 이병주 광양서 K리그2 1위 광주FC와 '엘로 더비' 관심

운드 대전전에서도 1-3으로 진 전남은 안양과의 3라운드 홈경기에서 K리그2 첫승을 신고했다. 이후 3부 1패로 주춤했던 전남은 8라운드 부산전에서 시즌 2승에 성공했다. '강타'를 상대로 한 승리였던 만큼 상승세가 기대됐지만, 5월도 1승 4패로 끝났다. 6월에 2승 2패를 수확한 전남은 안산전 무승부에 이어 대전전 승리도 7월을 열었다. 하지만 다시 연패가 기록됐다. 특히 28일 홈경기에서 0-1로 지면서 '최하위' 서울이랜드의 9연패 탈출의 제물이 됐다. 'ReStart 2019'를 모토로 한 전남의 올 시즌 성적은 6승 4무 11패(승점 22), 8위다.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4위 아산과는 승점 12점 차다. 안팎으로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잇단 오심 논란 속 파비아노 감독은 심판 판정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노출해 지난 5월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22일에는 전남팬 30명이 구단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꼬집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하위권에서 전전공공하는 전남과 달리 광주는 우려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시민구단이라는 약점 속 '해결사' 나상호가 일본 무대로 이적하면서 광주의 2019시즌에는 물음표가 가득했다. 하지만 광주에서 두 번째 해를 맞은 박진섭 감독은 19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끌며 1위 팀 감독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 광주는 시즌 20번째 경기에서 처음 졌지만 지난 27일 수원FC전에서 다시 2-0 승

리를 기록하며, 승점 9점 차 선두를 달리고 있다. 노란색을 주색으로 쓰는 광주와 전남의 맞대결은 '엘로 더비'로 통한다. K리그2에서 다시 전개된 '엘로 더비'에서도 광주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3월 27일 FA컵 대회에서 시즌 첫 대결을 가졌고, 광주가 1-0 승리를 거뒀다. 그리고 두 팀은 3일 만에 정규리그 경기에서 다시 맞붙었고 이번에도 승자는 광주였다. 5월 4일 광주 안방을 찾은 전남은 이 경기에서도 0-2패를 안고 돌아갔다. 공교롭게도 전남이 사령탑 교체 후 치르는 첫 경기 상대 역시 광주다. 광주와 전남은 8월 3일 오후 8시 광양전용구장에서 22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극과 극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광주와 전남의 네 번째 '엘로 더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타이거즈 카톡 이모티콘 '호야' 24종 출시

KIA타이거즈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호야' 24종 패키지를 출시했다. KIA타이거즈 마스코트인 '호랑이'와 '야구 덕후'의 초성을 따 이름 지은 '호야'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위해 새로 개발한 캐릭터로, 열렬히 응원하는 타이거즈 팬의 모습을 귀엽게 표현했다. '호야'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앱(APP) 이모티콘숍에서 'KIA타이거즈', '호야' 등으로 검색하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한 번 구매하면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카카오톡뿐 아니라 다음 카페와 댓글, 카카오톡 스토리, 카카오톡 뮤직, 카카오톡 TV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KIA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계정을 통해 홈경기 프리뷰와 선발 투수 및 선발 라인업, 경기 결과 등 경기 정보와 각종 이벤트 소식을 제공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시원~해요" 수상스키 묘기



29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팬아메리칸(팬암·범미주대륙)게임에서 콜롬비아 선수가 수상스키 여자 트릭 종목 결승전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일고 대통령배 4강 좌절 충암고에 4-6

광주일고의 대통령배 4강 진출이 무산됐다. 광주일고가 30일 정주야구장에서 열린 제53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8강 경기에서 충암고에 4-6으로 졌다.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광주일고는 유신고를 상대로 한 설욕전 기회도 놓쳤다. 광주일고가 이번 8강전에서 승리를 했다면 황금사자기 준결승전에서 패배를 안겨줬던 유신고와 대통령배 결승 진출을 다룰 수 있었다. 대신 '승자' 충암고가 31일 오후 3시 황금사자기에 이어 청룡기까지 제패한 유신고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사이영상 경쟁자 셔저, 부상자 명단 올라

맥스 셔저(35·워싱턴 내셔널스)가 올 시즌 두 번째 부상자 명단(IL)에 올랐다.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에서 앞서가는 분위기다. MLB닷컴은 30일(한국시간) "셔저가 능형근(등 근육) 통증으로 열흘짜리 IL에 올랐다"고 전했다. 워싱턴은 이날 셔저를 IL에 올렸다. IL 등재 날짜는 27일로 소급적용한다. 셔저는 8월 6일부터 메이저리그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데이브 마르티네스 워싱턴 감독은 "셔저가 남은 시즌에서는 100%의 몸 상태로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셔저는 7월 14일에도 IL에 올랐고, 26일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복귀해 5이닝 4피안타 3실점으로 주춤했다. 그리고 다시 IL에 올랐다. 부상이 크진 않지만, 완전하게 치료하고자 셔저는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셔저는 6월에 6승 평균자책점 1.00을 올리며 이달의 투수상을 받았다. 올 시즌 내내 꾸준히 활약하는 류현진과의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듯했다. 하지만 7월에 셔저는 단 두 경기만 등판했다. 30일 현재 셔저의 성적은 9승 5패 평균자책점 2.41, 189타점이다. 연이어 IL에 오르면서 2년 연속 300타점 달성 가능성도 크게 떨어졌다. 류현진은 11승 2패 평균자책점 1.74로 맹활약 중이다. 타점수는 116개로 셔저에 밀리지만, 볼넷/삼진 비율에서는 7.73을 올린 류현진이 7.56의 셔저에 앞선다. 다승, 평균자책점에서도 류현진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진영 브리티시오픈 출전 ... 시즌 메이저 3승 "GO"

박인비·이정은·박성현 등 한국 선수들 우승 경쟁

인 고진영을 비롯해 함께 우승 경쟁을 벌였던 박성현(26), 박인비(31), 김효주(24) 등이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지목된다. 에비앙 우승으로 세계 랭킹 1위에 복귀한 고진영은 올해 3승 중 2승을 메이저에서 따내 '메이저 사냥꾼'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LPGA 투어 비회원이던 2015년 출전한 브리티시오픈에서 준우승한 좋은 기억도 있다. 1년에 메이저 3승은 2015년 박인비 이후 나오지 않고 있는 기록이다. 세계 1위 자리를 고진영에게 내준 박성현도 이번 대회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 시즌 개막 전 올해 목표를 '메이저 포함 5승'으로 잡은 박성현은 이 대회에서 우승해야 시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남겨둘 수 있다. 최근 4개 대회에서 메이저 대회인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준우승과 LPGA 투어 아칸소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네 번 모두 10위 안에 드는 꾸준한 경기력이 이번 대회에서 결실을 볼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효주도 이번 대회를 가장 바라는 선수 중 하나다. 최근 5개 대회에서 준우승 2회를 포함해 모두 10위 이내 성적을 낸 상승세로 미루어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ANA 인스퍼레이션과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 /연합뉴스

박인비와 신인 이정은도 빼놓을 수 없는 우승 후보다. 박인비는 2015년 이후 4년 만에 브리티시오픈 우승에 도전하고, 이정은은 올해 US오픈에 이어 메이저 2승을 노린다. 이정은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

PGA 원팀 챔피언십 김민휘 등 한국선수 6명 출전

8월1일부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시지필드 컨트리클럽(파 70)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원팀 챔피언십에 나서는 선수들의 심정은 비장하다. 원팀 챔피언십은 2018-2019년 정규 시즌 마지막 대회이기 때문이다. 이 대회 종료 시점 페덱스컵 랭킹 125위 이내 선수만 플레이오프 1차전 노던 트러스트에 출전할 수 있다. 125위 밖이면 플레이오프 진출 무산뿐 아니라 2019-2020년 시즌에 PGA투어에서 뛸 자격을 잃는다. 페덱스컵 랭킹 190위 김민휘와 204위 배상문은 배수진을 쳤다. 김민휘와 배상문이 이 대회에서 125위 이내로 랭킹을 끌어올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125위 밖 선수가 정규 시즌 최종전에서 125위 이내로 진입한 사례는 12년 동안 연평균 2.7명이다. 82위의 안병훈과 99위의 이경훈은 70위 이내 진입이 1차 목표다. 플레이오프 2차전 BMW챔피언십 출전자 70명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1차전 노던 트러스트에서 랭킹을 끌어올릴 기회가 한 번 있지만, 미리 70위 이내에 진입해 자리를 잡아야 안심이다. 53위 김시우와 25위 임성재는 일단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챔피언십 출전권을 굳히는 게 급선무다. 투어챔피언십은 플레이오프 2차전 종료 시점 페덱스컵 랭킹 300위까지만 출전권을 준다. 좋은 소식은 내로라하는 강호들이 대부분 불참한다는 사실이다. /연합뉴스